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6. 22. Vol. 25

■ 농정이슈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등

■ 정책브리핑

메르스 관련 외식업·농촌관광·농산물 소비 등 대응방안 마련

■ 연구지원

각 부처별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

■ 현장여론

가뭄 실태와 농작물 작황변화

☞ 농정이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한중미 FTA 협상 개시, 6.18.]**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에카*(SIECA) 국가들과 통상장관회담(6.18., 미국)을 갖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중미 6개국이 한국과 최초 FTA 타결 시 **중미 시장 선점의 중요한 계기**
 - ※ 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으로 구성된 중미 경제통합기구,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 추진
 - **(주요 수출 품목) △한국**···자동차, 전자, 섬유 등, **△중미**···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
- 자료 : KBS·YTN·경향신문·머니투데이·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6.19.)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중미 6개국과 상생형 FTA 협상 개시」(2015.6.19.)

□ 중국·호주 FTA 공식 서명

- **[중국·호주 FTA 공식 서명, 6.17.]** 앤드루 롱 호주 통상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 **협상 10년 만(2005.4.)**에 서명
 - **(호주)**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 와인, 유제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 단계적 인하해 연간 **최대 200억 호주달러(19조 원) 수출 효과** 기대
 - **(중국)** 호주행 **전자제품 관세 5 → 0%**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경제 영토 확대 효과*** 기대
- ※ (평가) 미국이 추진하는 TPP를 견제할 발판 마련
- 자료 : SBS·YTN(2015.6.17.) / 국민일보·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한국경제(2015.6.18.)

□ TPP 주요 동향

- **[미국 하원, TPA 재표결 전격 처리, 6.18.]** TPP 관련 TPA 법안 재투표* 끝에 **통과**(찬성 218표, 반대 208표), 법안 처리 뒤 상원**으로 송부
 - ※ TPP 관련 법안과 TAA(무역조정지원제도)를 연계 처리하려다 민주당위원 다수의 반발로 무산(6.12.)되어 부결되자 TPA를 **별건으로 분리 처리**
 - ※ 상원은 이미 TPA와 TAA를 패키지로 처리(5.22)한 바 있으나 이번에 법안이 분리됨에 따라 다시 각각 의결절차 진행
- 자료 : 경향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2015.6.16.) / KBS·국민일보·농민신문·news1·서울경제·아시아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5.6.17.) / KBS·YTN·서울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2015.6.18.) / KBS·YTN·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데일리한국(2015.6.19.)

㉔ 농정이슈

□ 가뭄확산에 따른 피해대책 주요 상황

- [정부, 긴급대책회의 개최*(6.12),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최근 중북부지역 가뭄피해 확산***에 따른 관련기관의 선제적 대응
 - ※ (참석)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지자체 실무과장
 - ※※ 인천·경기·강원 산간으로부터 제한·운반 급수지역 증가,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들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확산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조치
 - ※※※ 생활용수 부족지역 19개 시군구(65개 마을 3,803세대), 농업피해지역(논 물마름 2,451ha, 밭작물 시들 3,359ha)

〈각 부처별 지원 내용〉

-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전담팀을 비상대응체제로 강화운영하면서 가뭄실태를 매일 파악 및 관계부처별 지원대책 검토, 생활용수 부족지역에는 소방군부대 장비인력 적극 지원
- (농식품부) 논 물마름 현상이 심한 중부 가뭄발생지역의 하천공작, 양수, 물차공급 등 간이 용수 공급과 밭작물 시들 현상이 심한 지역에 관수시설 설치 위해 가뭄대책비 64억 원 조기 지원
- (환경부) 2015년 상수도 확충 사업비를 우선 활용 방안 검토해 가뭄이 심한 상수도 미 보급지역 관정 개발에 우선투자하고 무료수질검사를 지원하는 등 먹는 물 공급에 적극 대응
- (국토교통부) 지자체 음용수 지원 요청 즉시 병물과 물차 지원, 한강수계 다목적댐, 발전용댐과 연계 통해 수도권 농업생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최대한 연장

자료 : YTN(2015.6.14.) / NEWSis매일경제·머니투데이·이데일리(2015.6.15.)

참고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_「정부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대응」(2015.6.15.)

- [박대통령,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조치 강구 지시] 수석비서관회의(6.15.)에서 농식품부*에 대해 가뭄 대책비 조기 집행하고 영농 활동 적극 지원 당부
 - ※ 농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6.16.)에서 가뭄 피해 지역에 예산 625억 원 투입해 급수와 피해 복구 지원 밝혀

자료 : KBS·SBS·YTN(2015.6.15.) / 이데일리(2015.6.16.) /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6.17.)

- [최경환 부총리 주재,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6.17.] 가뭄 대응 및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논의, △범부처적으로 가용 장비와 예산·인력 총동원해 긴급용수 공급 및 저수지 준설과 재해복구 지원 적극 추진, △서민들 식탁불안 안정 위해 고랭지 채소 등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만전

자료 : KBS·SBS·YTN·문화일보(2015.6.18.) / 국민일보·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6.19.)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5년 제12차 경제장관회의 개최」(2015.6.17.)

- [국민안전처, 중북부 가뭄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긴급지원, 6.17.]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분 해결을 위해 관정개발·정비, 저수지 준설**, 양수기 구입 등 가뭄 극복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

※ 인천 13, 경기 12, 강원 22, 경북 10, 충북 3

※※ 농식품부 저수지 준설사업비 20억 원 추가 지원(6.19.), 당초 30억 원 지원(6.12.)

자료 : KBS·SBS·YTN(2015.6.18.) / KBS·YTN·국민일보·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6.19.)

참고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_「가뭄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긴급지원」(2015.6.18.)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비 추가지원」(2015.6.19.)

㉔ 농정이슈

□ 돼지고기 가격안정 프로젝트 진행

- [농식품부·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인증점과 농협 판매장* 할인행사 추진, 6.16.~] 최근 지속적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메르스로 위축**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 도모

※ 한돈인증점(식육점 65개소), 농협하나로마트(40개소)

※※ 최근 돼지고기 지육가격이 kg당 6,000원대 형성하면서 삼겹살 소비자가격이 20,000원대를 웃돌고 있고, 메르스 등에 의한 소비감소로 외식업체 어려움

• (한돈 인증제도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장 중 일정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인증심사를 거쳐 한돈 판매 인증 부여

- (주요 내용) △한돈인증점 식당...13만인분에 대해 삼겹살 1인분 가격 2,000원 할인·판매(6.20.~), △한돈인증 식육점...정상가보다 30% 할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햄, 소시지용 돼지고기(앞다리살) 35% 할인·판매
 - ※ kg당 앞다리살 800원, 뒷다리살 450원 할인

자료 : news1·동아일보·세계일보(2015.6.16.) / 농축유통신문·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5.6.19.) / 농촌여성신문(2015.6.22.)

참고 : 농식품부·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보도자료_「소비자가격 부담완화 및 메르스로 인한 외식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170여개 한돈인증점, 삼겹살 1인분 2천원 할인판매” 한돈인증점(식육점 65개소) 및 농협하나로마트(40개소)에서 삼겹살 등 할인판매(30~35%) 병행 실시」(2015.6.14.)

□ 여름철 축산물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실시, 6.15.~7.10.]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유통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130개소 대상,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 예방,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불신 해소

- (주요 점검 내용) △냉장·냉동축산물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영업장의 위생 관리기준 준수,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 ※ (수거검사)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

자료 : KBS(2015.6.15.) / 경향신문·연합뉴스·쿠기뉴스·파이낸셜뉴스(2015.6.16.) / 농축유통신문·축산신문·한국농업신문(2015.6.19.)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_「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2015.6.8.)

㉔ 농정이슈

□ AI 발생 주요 동향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 [AI 발생 동향*, 6.18. 기준] △총 889건(양성 186, 음성 692, 검사 중 11), △살처분: 231농장 5,084천 수
- [정부, 구제역 관련 감사(2015.3.2~4.10.) 결과, 구제역 백신 관리 부실] 구제역 백신의 선정, 검정기준, 공급체계 및 수입선 다변화, 구제역 예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와 관련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례 발견
- [민관합동,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6.22~7.17.] 구제역·AI 발생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665개소* 중심, △점검내용·축사 유형과 방역 시설, 백신 접종 여부와 분뇨 처리 실태, △조치계획·차단 방역 시설 등 미흡한 농가에 축산시설 현대화와 교육 등 지원
※ 발생농장 347호(구제역 185, AI 162), 도축장 131개소, 전통시장 187개소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특별점검 결과 취합분석 후, 대상별 관리방안 마련(7월),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 위한 농가별 차단방역 관리(8월~)

〈가축방역체계 개편 기본방향〉

- (역할분담) 농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역 주체 간에 역할 분담 명확화 등 방역추진체계 정비
- (방역체계 효율화)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항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 전환
- (체질개선)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
- (기타사항)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 및 규정 준수 유도 위해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자료 : KBS SBS(2015.6.18.) / 국민일보:NEWSis·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중앙일보·축산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2015.6.1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민관합동, 구제역·AI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구제역 관련 감사결과 및 가축방역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2015.6.19.), 농식품부 자료_「AI 방역 추진상황(6.19.)」(2015.6.19.)

㉔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메르스 관련 외식업·농촌관광·농산물 소비 등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6.17.)

□ 메르스 관련 농식품 분야 경제적 영향 분석

- [농식품부, 중증호흡기중후군(MERS, 메르스) 확산으로 '농식품 분야 경제적 영향 점검반' 운영, 6.5.] 농식품 분야(음식료품 및 외식업계 매출액, 농산물 소비, 농촌 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추이 파악
- (외식업) 560개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업계 영향조사(한국외식산업연구원, 6.8~14.) 결과, 확산시점(5.30.) 2주 전 대비 외식업체들의 **평균매출액 약 38.5% ↓**

Ⅰ 외식업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Ⅰ

업종	주중 매출		주말 매출	
	점심	저녁	점심	저녁
한식	35.1	41.3	38.3	43.8
외국식 전체	41.3	47.7	45.2	48.5
- 중식	39.7	42.8	43.9	43.7
- 일식	41.6	50.8	40.8	47.5
- 서양식	43.7	52.0	49.1	53.3
피자/햄버거/치킨전문점 등	22.5	29.9	22.5	29.1
분식 및 김밥전문점업	32.9	33.9	34.2	38.4
전체(38.5)	34.3	40.4	37.1	42.8

※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외식산업연구소) 조사 결과(560개 업체, 6.8~14.)

- (농촌관광) 메르스 확산 이후 전체 840개의 농촌체험마을 중 34개(각 도별 4개, 제주2) 샘플조사 결과, 농촌관광 예약 취소 **약 90% 이상***
※ (5.3~4주) 예약 방문객 취소건수(3.3%)/예약액(4.3%) → (6.1주) 63.0%/75.3% → (6.2주) 92.8%/95.6%
- (음식료품) 음식료품 매출액* 메르스 확산 이후(6.1주) **8.3% ↓**
※ 농협하나로마트(전국 66개 매장) 조사결과

□ 대응 방안

- [정부, 다양한 대책 추진] 외식업계 피해 최소화, 농촌 관광수요 재창출 및 농산물 소비확대

▣ 정책브리핑

<외식업>

- **[외식업체 경영안정]**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2015.말 → 2016.말)
 - ※ 음식점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 **[외식업계의 피해 및 자금수요 고려]** 식품외식종합자금 내 외식업체 육성자금의 배정한도(현재 27억 원)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 정책금리(현행 3~4%) 인하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외식업체 간담회*(6.15.)에서 제기된 내용 적극 검토]** 국내 농산물 구매조건(현행 125%) 완화 및 사이버거래 상의 B2B거래 수수료(0.15~0.1%) 면제
 - ※ (개요)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선편이협회, CJ프레쉬웨이 등 외식관련업계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논의
 - ※ ※ Business-to-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재료나 공사 입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B2B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개인을 상대하는 B2C(Business-to-Customer)

<농촌관광>

- **[‘농촌관광맞춤형 체험단’* 운영]** 피해 가중 마을(지역) 대상
 - ※ 계획(안): (규모) 총1,500명 / (일정) 모집 7.1.~15., 운영 7~11월, / (지원내용) 숙박 및 식비, 체험비, 교통비 등
- **[관광상품 개발홍보]** 7월 이후 여름휴가와 연계하여 기업체 임직원, 수학여행 및 1교1촌 결연운동 통해 농촌관광 집중 홍보

▣ 향후 계획

- **[모니터링 강화 지속]** 농식품 및 외식업계의 매출상황, 농촌관광 추이, 농산물 소비 및 수출 추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
 - ※ (외식업 추이) 외식업중앙회 → 외식산업협회 + 프랜차이즈협회 + 사이버몰(aT) 등 채널 다양화 및 추가적으로 관광지역에 대한 외식업체 확대 조사
- **[메르스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에 대응]** 국내외 농식품 수요의 조기 회복과 이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수출확대 위해 노력
 - ※ 소비자단체와 협조, 자조금 등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 및 직거래 확대, 대형유통업체 판촉전 개최 등 소비활성화 유도

▣ 연구지원

연구지원 각 부처별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2015.6.17.)

□ 개요

- **[2016년도 예산금 총지출 요구 규모 390.9조 원]** 전년대비 4.1%↑(15.5조 원),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 10대 과제: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one-out/one-in 등),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

□ 주요 내용

-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 전년대비, (증액)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 (감액)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

구 분	2015 예산(A)	2016 요구(B)	증감(B-A)	증감률(%)
총지출	375.4	390.9	15.5	4.1
1. 보건·복지·고용	115.7	122.4	6.8	5.8
2. 교 육	52.9	56.2	3.3	6.3
3. 문화·체육·관광	6.1	6.5	0.4	6.1
4. 환 경	6.8	6.5	△0.3	△4.8
5. R&D	18.9	19.4	0.5	2.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5.5	△0.9	△5.3
7. SOC	24.8	20.9	△3.9	△15.5
8. 농림·수산·식품	19.3	19.0	△0.3	△1.5*
9. 국 방	37.5	40.1	2.7	7.2
10. 외교·통일	4.5	4.6	0.1	1.2
11. 공공질서 및 안전	16.9	17.8	0.8	5.0
12. 일반·지방행정	58.0	61.9	3.9	6.8

※ 농림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 **[향후 추진 일정]** 기획재정부, 각 부처 요구안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확정*하여 9.11.까지 국회 제출

※ 국민의 세금 낭비 방지 및 필요한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합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할 계획

품종보호 출원 현황

- **[한국 세계 7위 품종보호 출원국 달성]** 최근 발표된 UPOV 기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 2,913건(2009~2013, 5개년)으로 72개 회원국 중 7위
 ※ 한국 출원 건수 순위(5년 누적): (2003) 11 → (2006) 9 → (2009) 8 → (2013) 7위

UPOV 상위 10개국 품종보호 출원 현황(2009~2013)

순위	국가	품종보호출원 신청 품종			
		2009~2013(5개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유럽연합(EU)	15,002	3,184	2,868	3,296
2	미 국(식물특허)	8,257(5,645)	1,613(1,139)	1,648(1,149)	1,889(1,406)
3	중 국	6,613	1,255	1,583	1,510
4	일 본	5,466	1,126	1,110	1,054
5	우크라이나	4,864	1,095	1,281	1,544
6	네덜란드	3,611	783	639	747
7	한 국	2,913	587	606	599
8	러시아연합	2,806	452	691	555
9	캐나다	1,685	305	386	322
10	호 주	1,652	330	304	330

※ 자료 출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미국 품종보호출원은 식물신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 Act)와 식물특허(Plant Patent Act) 제도로 운영

연도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합계	1998~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출원	7,453	3,919	547	574	587	606	599
	등록	5,218	2,533	399	453	448	444	459
식량작물	출원	1,026	634	73	56	73	57	71
	등록	832	509	42	55	49	55	55
채소류	출원	1,523	710	93	118	133	157	155
	등록	921	346	64	97	72	96	88
과수류	출원	458	191	46	53	53	33	37
	등록	256	111	18	20	23	23	48
화훼류	출원	3,956	2,177	287	299	283	296	292
	등록	2,897	1,407	263	260	279	246	224
특용작물	출원	289	142	24	18	19	41	25
	등록	187	115	4	8	13	9	23
사료작물	출원	50	20	1	6	10	8	2
	등록	32	14	3	1	0	0	8
버섯류	출원	151	45	23	24	16	14	15
	등록	93	31	5	12	12	15	13

-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일종, 육성품종에 대한 상업적 실시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내용으로 함. 한국은 1998년부터 제도 도입 시행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 식물신품종보호 지식재산권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동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품종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지향함(본부: 스위스 제네바).

※ 2015년 현재 72개 회원국, 우리나라는 2002년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6.16.)

현장여론 가뭄 실태와 농작물 작황변화

자료: KRE리포터를 대상으로 향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KRE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6. 7. ~ 6. 16.(총 16건)
- 수집대상: KRE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가뭄 실태와 농작물 작황변화에 대한 현장여론

- 몇 십 년 만에 온 심각한 가뭄과 5월 이상기온으로 양파와 마늘 생육이 정지되고 수확량과 품질이 급격히 감소함. 또한 **콩 파종 지연과 물을 잡지 못한 논에는 이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는 모판에서 썩어가는 등 심각한 상황임.** 가뭄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배병열, 전남 무안 외 1>
- 비가 오지 않아 **경기 남부지역 대표작물인 수박, 감자, 마늘, 콩 등 파종이 지연되거나 시들어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작은 가뭄이 심해 이끼가 발생하고, 모 심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끼분해제로 급히 처방하였음. 현지상황으로 볼 때 가뭄으로 인한 발작물 가격 상승이 예상됨.<연규석, 경기 평택>
- 가뭄이 지속되면서 발작물 작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콩, 생강, 참깨 등 밭이 말라 파종작업이 지연되고, 고춧잎이 시들어 결실이 잘 안 되고 있음.** 수확기에 접어든 마늘 역시 상품성 있는 마늘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김종근, 전남 순천 외 2>
- 강수량 부족으로 올해 채소, 과채 등 밭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인상이 예상됨. **단기적으로는 간이용수개발 및 대체작물 심기, 장기적으로는 관정확보, 저수량 높이기와 저수지 추가 건설, 수계변경 등이 필요함.** 저수량이 적은 시기에 저수지 바닥과 주변의 잔토, 쓰레기 등을 거두고 수질개선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 저수지 관리가 요구됨.<임충빈, 경기 안성>

☞ KRE리포터 현장여론

- 모를 심은 논은 모가 시들지 않도록 물 관리를 하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논둑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밭은 짚과 유기물 등으로 피복하거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관수에 신경 쓰는 등 **논과 밭작물을 구분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함**.<임영애, 제주 제주>
- 김해지역은 비가 조금씩 내려 다행히 가뭄피해는 없는 편임. 예년대비 농작물 수확량은 상당히 감소하고, 지역의 주작목인 산딸기는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지난해 여름장마로 인한 영향이라 예상됨. 앞으로 **가뭄피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관리 대책이 절실함**.<김병철, 경남 김해 외 1>
- 우리 마을은 농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과나무, 콩 등에 물대기에는 어려움이 없고, 농작물 작황에 큰 변화가 없음. 반면, 농수로가 없는 곳은 관정을 파서 물을 대고 있는데 그 수가 많아질수록 물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 **가뭄 피해가 잦은 지역은 가뭄에 강한 대체작물 생산을 유도해야 할 것임**.<김현자, 경남 밀양>
- 우리 지역은 수리안전답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지하수 관정이 잘 되어 있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편임. 그러나 **계속해서 밤낮으로 지하수를 퍼내다 보니 향후 지하수를 더 깊게 파헤치고 하수도 사용료만 증가하는 지하수 전쟁이 우려됨**.<유영순, 충남 서산>
- 양수기로 계곡물을 끌어다 쓰는 것에 한계가 있어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였더니 증발량이 많았음. 고압분무기를 이용하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논밭이 많지 않은 실정임. 급한 대로 휘발유를 넣어 사용하는 고압분무기를 재구입 하였으나 올해 초 배정된 농업 면세유를 다 소진해 비용부담이 커짐. **가뭄철에는 양수기, 스프링클러, 고압분무기 사용빈도가 높아 면세유의 한도를 확대해 주길 요망함**.<송인숙, 강원 강릉>
- 요즘 가뭄이 매우 심각해 채소가 햇볕에 시들어갈 때마다 농심도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경사진 농지에 심어진 애호박, 오이, 고추에는 관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상하수도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평야농지를 제외한 **산간지대는 지하수 보조 사업을 확대해 가뭄피해를 최소화 해주길 바람**.<변옥철, 강원 춘천 외 1>
- 비닐을 씌운 밭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방법보다는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땅에다 직접 물을 주어야 적은 물로도 효과적인 급수가 가능함. 우리 마을은 **22개 행정리 가운데 10곳만이 고압분무기를 지원받았고, 그 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급수지원 확대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망함**.<송인숙, 강원 강릉>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